광주시민 10명 중 7명 "대선 투표 후회 않는다"

민주 광주시당 여론조사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은
정부·여당 실망감, 부동산 문제

광주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낙선했음에도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시민의 10명 중 5명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우선으로 꼽았다.

민주당과의 정서적 일체감에 있어서는 광주시민들도 세대·남녀 간 인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18~20일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광주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3%는 이번 대선에서 나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 시민들은 후보 선택 이유로 34.2%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를 꼽았다. 이어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27.9%)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15.5%)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8.2%) 순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광주 득표율은 84.82%,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12.72%였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현 정부와 여당(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3.4%) ▲윤석열·안철수 단일화(31.4%) ▲정권교체 프레임 (26.0%)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은 57.7%였다.

이번 조사에서 동일 연령대를 다양한 직업군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표적집단 면접조사도 실시한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과 정서적 일체감에 있어서 세대 간, 성별 간 인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에게 민주당은 000이다"이라는 표적집단 면접조사(FIG)결과 18~34남성의 경우 '아군의 탈을 쓴 적군(호남을 대변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실질적 이해는 방해하는 느낌)', '악어와 악어새(민주당이 돼야 호남을 챙겨주는 공생관계의 대표적 경우)' 등의 응답이 있었다.

35~49세 남성은 '오랜 친구'(과거 의리가 생겼고 너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자식'(애증의 관계), 60세~55세 남녀는 '토사구팽'(내가 민주당 지지하지 않으면 소외당할까?)의 반응이었다.

18세~24세 여성은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 '미운 오리새끼'라는 반응을, 35세~49세 여성은 '어설픈 정당', '이제는 바꿔야 할 낡은 대상', '철없는 아들' 등의 답변을 했다.

이밖에 광주의 주요 현안으로는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복합쇼핑몰 등 쇼핑·문화시설 확충 36.2%, 지역 명소 구축 32.9%, 도시재생 24.7%, 광주 군 공항 이전 22.7% 등이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광주 시민들의 대선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당부를 바탕으로 처절한 반성과 함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400ha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농업인은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종중회의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불확실하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전남도는 6월 대량검증, 7~9월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19만2000여 농가에 4431억원을 지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코로나 의료진 격려 전남도는 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목포아동병원을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 우크라 피해기업 안정자금 200억 긴급 지원

기업당 최대 3억 융자

전남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긴급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3억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이자 2.5%를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과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이번에 재신청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을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러-우 사태로 전남지역에도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도록 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025년 국제행사 목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가 남도의 맛을 세계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치르기로 하고,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남도음식의 잠재력과 지역 강점을 토대로 중앙부처 국제행사 승인, 남도음식 국가브랜드화 로드맵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이규민 경희대 책임연구위원의 착수 보고에 이어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를 비롯한 관광 분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남도음식의 우수성과 가치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지역적·세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남도음식의 차별화, 산업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및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2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 소비재 온라인 무역사절단
광주시, 7개 참가기업 모집

광주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과 '2022 중국(상하이, 항저우) 소비재 온라인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중소기업 7개사 내외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의 광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15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이메일(hongsm@kotra.or.kr)로 접수해야 한다.

참가 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무역사절단 화상상담회 일정은 상하이 지역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항저우 지역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참가 기업에는 맞춤형 바이어 상담매칭, 화상상담, 통역 지원은 물론 사후관리로 바이어 거래선 관리, 해외 지사화, 출장 지원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손항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에도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통해 관내 10개 기업이 45만8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